

“여성 환경기술인도 동등한 대우 받아야 할 때”



▲ 대담장면: 류희경 환경기술인(좌)와 김병오 편집국장(우)이 대담하는 장면

“여성 환경기술인으로서 애로점도 많지만 때론 환경을 책임진다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산업현장의 환경지킴이역을 수행하고 있는 류희경 환경기술인은 환경인 비전에 대해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는 또 현실의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인력 수급현황에 대해서도 다소 불멘소리로 일관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환경기술인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오늘도 맡은바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류희경 여성 환경기술인을 지난 27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

☞ 오랫동안 여성 환경기술인으로, 또 산업현장의 환경파수꾼으로 재직해 오셨는데 그동안의 감회를 말씀해 주시죠.

▲ 제가 처음 환경인으로 시작했을 때만해도 환경기사라 하면 그게 뭐하는 기사냐 하는 식으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정도로 환경기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남다른 인식으로 환경기

술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여성 환경기술인들은 대부분 자격증만 걸고 총무 쪽에서 일들을 많이 할 때라 안전화 신고 작업복 입고 환경현장에서 청소하는 저를 보고 다들 이상하다 생각들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여성 환경기술인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으니 세월이 많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고 방시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맡고 있는 일은 어떤 분야입니까.

▲ 저희 회사는 타올 원단과 니트나 타올 양말 등을 만드는 실을 염색가공하는 회사입니다.

하루에 약 1,800톤의 폐수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수질 2종, 대기 2종인 업체입니다.

이곳 대전은 타올 집산지라 타올원단이나 선염가공하는 업체가 많으며 저는 수질분야환경기술인으로 폐수처리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폐기물 쪽과 대관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 환경기술인으로 재직하시면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대전 충남환경기술인협회 수석부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지역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지역협의회 일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관 위주의 단체와 그 범위를 벗어난 민간단체의 역할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위주의 즉 관변단체 비슷한 곳들의 활동은 형식적이며 가시적인 성과 즉, 시작과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말로 필

요하고 절실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아이들, 주부, 학생들과 쉽게 접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뿌리내린 식물은 아주 달고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역민간단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환경정책도 지자체에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향간에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실무자 입장에서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과거에는 중앙에서 직접 통제를 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우리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일례로 보면 한때 UV기라고 COD자동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측정기의 제작사들이 외국이거나 서울에 거의 편중되어 있다 보니 가격도 비싸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꽤 많은 시일이 걸렸고 관에서 단속이라도 나오면 제때 수리를 못했다고 지적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만든 정책이



▲ 환경실무자 교육장면



▲ 푸른 숲 가꾸기 운동전개

ⅢⅢ 표지인물과의 만남

었다면 지역자체의 시장조사와 아울러 현장의 현실이 많이 반영되어 그런 애로사항은 발생치 않았겠죠.

☞ 산업현장의 환경기술인들은 사업장내의 환경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도외시한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애로점은 무엇이며, 보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많은 환경기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점이지만 대부분 사업장들이 환경비용에 대해 생산과는 달리 소비의 개념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개·보수에는 적극적이거나 환경설비의 교체나 개·보수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생산설비의 증설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되어도 방지시설은 노후 되고 시설용량은 그대로니까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해결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용량부족에 따른 처리미비로 단속에 적발되거나 개선명령을 받아야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기업들은 많은 부분에서 환경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르다 보니 아직은 힘이 듭니다.

☞ 현장의 환경관리 실무자로서 현재 법적·제도적 개선점이 많이 적시해 왔을 텐데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밀려 기업의 환경투자는 점차 후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관련 법률안 개정으로 환경기술인 의무고용이 완화되고 또한 기업의 규제완화로 각종 환경규제 및 환경기준치 등이 기업 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기술인들의 존재가치가 약화되고 설자리가 점차 없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이윤배반적인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향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또한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환경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자격완화나 기준완화 등의 제도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목을 잡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범글로벌 시대에 환경을 도외시한 나라나 기업은 살아남 수 없다는 국제적 흐름을 우리의 정책입안자들도 이제는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함에 있어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간략히 들려주시죠.



▲ 갑천하천정화 운동



▲ 하천살리기 캠페인후 기념촬영



▲세계 물의 날 기념 정화활동

▲ 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의 수리는 공장가동을 하지 않는 연휴기간이나 휴가 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래전 여름 휴가때 폐수처리장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을 보수하러온 업체직원이 저를 보더니 아가씨는 어느 페인트가게에서 왔어? 하더라고요. 모자 쓰고 목에 수건을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아저씨는 제가 환경기술인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여성 환경기술인이 직접 페인트칠하고 막대 수세미 들고 다니며 뛰어다니는 걸 못 보았단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른 남성 환경기술인들은 안전화 대신 장화 신고 늘 기름투성이로 다니던데 저라고 페인트칠 못하겠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은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이 제가 여성이다 보니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고,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입사 동기라 해도 승진이 늦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전담시키기 보다는 자격증만 걸어놓고 사무실에서만 근무시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폐습은 이제 시정되어야 하며, 환경기술인의 존재가치도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높여 나가야 할 것입

니다.

● 전국에 10여만명의 환경기술인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료로서 격려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보아 온 환경기술인들 대부분이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많은 업무에 지쳐 밝은 모습보다는 어둡고 우울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위장병이 생길만큼 힘들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그만큼의 권리도 주어진다고 봅니다.

힘내시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공부하시고 무엇보다도 맡은 업무가 막중하므로 건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기술인들은 산업현장의 환경지킴이라는 사명감과 나와 회사와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봉사한다는 각오로 현업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식견을 높이기 위해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